인재 DB로 복지 인력 인프라 넓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종무기조 · 핵심과제 발표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불교사회복지 전문인재들의 정보를 모아 DB구축에 나선다. 불교사회복지 활동범위가 늘어남에도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읽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은 서울 견지동 1월 24일 전법회관 보리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무기조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재단은 '무한복지 무량행복(無限福祉無量幸福)'을 2018년 종무기조로 인종 · 사상 · 연령 · 성별 · 지역 등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끝없는 복지실천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재단은 올해 핵심과제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설립 확대 및 운영 안정화 △불교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체계화 △인적자원 확보 및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문 인재 관리 △불교자원봉사 활동 조직화 및 긴급재난 네트워크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소외이웃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이 중 눈에 처음 시도되는 '불교복지 인적자원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문인재 관리'가 눈길을 끈다.


상임이사 묘장 스님이 신년 계획을 밝히고 있다.

불교복지 인적자원 확보

재단은 인적자원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 각지의 인재 정보를 모아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불교사회복지시설은 늘어나는데 실질적 불교사회복지 인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데서 착안했다.

재단은 우선 산하 사회복지시설,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인적자원 정보를 취합할 예정이다. 불교적 소양과 사회복지 현장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 및 실무자를 양성하고 관리한다는 취지다. 또한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사업 및 교육커리큘럼을 개발 ·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불교사회복지 전문가 분포를 알 수 없는데 대한 해결방안으로 풀이된다. DB가 구축되면 인력자원은 신규 시설 위탁을 맡기거나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에 전문가로 배치되는 등의 방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개념정리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종단 내 일원화 된 삼귀의와 반야심경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불교사회복지'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복지 교육커리큘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확대

조계종 25개 교구본사 중 사회복지법인을 운영 중인 본사는 12곳이다. 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조계종 새 집행부의 기조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확대하고 운영을 안정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복지법인 미설립 교구본사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설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에 집중된 시설 운영과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목적이다. 1교구본사-1복지법인을 통해 지역간 사회복지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설립준비 교구본사 방문을 통한 행정지원 및 법인설립을 독려 중이다.

또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사무국 역량을 높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유치 ·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설립된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대상 워크샵, 간담회, 방문컨설팅을 통해 △행정운영 △산하시설 지도점검 교육 △위 · 수탁 운영 노하우 △시설민원관리 교육 등을 돕는다.

활동 조직화, 시설 내실화도…

지난해 11월 15일을 기점으로 발생한 포항 지진 사태에 조계종의 발빠른 긴급구호단 파견은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회복지재단은 종단, 재단, 지역 사찰 및 단체로 이어지는 긴급재난 네트워크를 구축해 앞으로도 재난에 발빠르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질적 담보를 위해 운영시스템도 정비된다. 기존 1년에 2번 진행되던 시설장 임용평가를 강화해 분기별 1회 실시한다. 시설장의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대상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따른 평가 점검 및 행정지원도 이뤄진다.

묘장 스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헌신해온 불교사회복지를 보다 활성화 하고, 사회와 함께하는 불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불교사회복지의 허브(HUB)로 거듭나겠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재소자 · 불우이웃 대부, 현성 스님 입적

1월 20일 입적, 24일 영결 다비식 거행


청담문도회장으로 진행된 현서어 스님 영결식에서 후학 스님들이 스님의 원력을 잇기를 다짐하고 있다.

재소자, 독거어르신 등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묵묵히 이끌어 온 서울 도선사 조실 경하 현성(玄惺) 스님의 1월 24일 영결 · 다비식이 서울 도선사 호국참회원과 남양주 보광사에서 엄수됐다.

영결식과 다비식에 참석한 500여 대중은 눈물로 현성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청담문도회장으로 엄수된 이날 장례에는 조계종 전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종하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등 오랜 도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영결식과 다비식에서 불자들은 현성 스님이 생전 보여준 전법교화의 원력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청담문도회 문장 혜성 스님을 대신해 동광 스님은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사슬을 끊었으니 얼마나 갸벼우십니까. 왕생보다도 더 큰 열반의 즐거움을 만끽 하실 테니 얼마나 기쁘십니까"라며 추모했다.

조계종 前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은 영결법어를 통해 "스님에게 무량자비지은(無量慈悲之恩)을 입은 대중들이 항하(恒河)의 모래들만큼이나 많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마다 니전에서 피어난 기연의 연꽃처럼 선연의 향기를 퍼뜨리셨다. 한국 근대불교 최고 선지식이신 청담대종사의 법맥을 계승하여 도선사의 불사를 전두 지휘하셨다"며 기렸다.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항상 청담 문도회를 생각하시며 문중의 화합을 위해 진력하셨던 사형스님"이라며 "한국불교를 위해 청소년 교화를 위해 진력하셨고 신도들의 보시금을 아껴 군법당 건립과 구치소 교화에 열정을 쏟으셨다"고 회고했다.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 상좌 스님들은 "큰스님 가르침을 따라 수행과 중생제도에 신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성 스님은 1월 20일 법랍 53년, 세수 80세로 입적했다. 스님의 49재는 현성정사에서 초재를 시작으로 고성 옥천사, 부산 내원정사, 현성정사, 능인선원, 부산 미타선원에서 이어진다. 49재는 3월 9일 도선사에서 봉행된다. 〈관련 추모기고 A19면〉

노덕현 기자

2018년 한마음선원 장엄등은 '해수공용등'

1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장엄등불사 화합재 봉행

2018년 연등회를 화려하게 장엄할 한마음선원 장엄등 계획이 공개됐다. 한마음선원(재단이사장 혜수)은 1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불교문화회관에서 '2018 한마음선원 장엄등불사 화합재'를 열고, 장엄등 불사 돌입을 알렸다.

이날 화합재에는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해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각 지원장 스님들과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 300여 명이 참여했다.

2018년 한마음선원 장엄등은 해수공용등으로 모든 생명들이 모여 한 바다를 이룬 가운데, 어느 생명 하나 빠짐 없이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하며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해수공용등은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배 형태로 일체 만물의 근본 불성을 형상화 한 것이다.

국인호 한마음선원 청년회장은 "각자에게 갖춰져 있는 근본불성을 믿고, 일체가 나와 둘이아니라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대장부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엄등 불사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해수공용등에 담긴 뜻을 잘 새겨서,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하고, 화합하고, 정진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한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많은 신도님들과 함께 하는 스님들의 손길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정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은 1월 21일 안양본원 불교문화회관에서 화합재를 열고 장엄등불사 돌입을 알렸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매년 연등회에서 대상격인 정진상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하고 있다. 특히 수개월간 청년회와 신도회에서 조직적으로 장엄등 제작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덕현 기자

LA서 진행된 첫 미주 공승법회 눈길

LA달마사서 1월 21일 300여 불자 운집

LA조계종연합회(회장 현일)는 1월 21일 LA달마사에서 '2018 남가주 불자 신년하례식 및 공승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에는 LA포교사단과 사찰연합합창단, 그리고 LA불교대학, 타라연합청년회 등에서 3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9대 LA조계종연합회 신화생 포교사단장과 10대 장준구 단장의 이 ·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신년하례식에서는 공승법회가 함께 열렸다. 미주한국불교 최초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LA지역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공양물을 올렸다.

회장 현일 스님은 환영사에서 "스님들은 끊임없는 정진과 수행을 통해 전법교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스님과 불자가 서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새롭게 시작된 한 해, 힘차게 정진해 가자"고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첫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 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